東亞日報
發行所 東亞日報社 서울市光化門通

兩軍撤退와 選擧監督할 유엔特別委員會設置

美側數日內로 朝鮮計畫案提出

美勃政府承認 駐勃公使任命

유엔總會難關逢着

安保理事國選擧問題로

……로否決 그러고蘇聯은 今般二次의否認權行使로서 否認權行使回數는廿二回에達하다고한다

伊芬兩國UN參加에 蘇氏否認權行使

【레이크석세스二日發INS】 [illegible]

中央芝罘港占領 中共連絡路切斷

【南京二日發AP=合同】最近國府側戰況은 如左하다

▲山東省方面=中央軍은 陽海至三軍共同作戰에依하야 山東半島北海岸의 芝罘港을 占領하였고 中共軍은 東方으로 敗走하고있다하는데 이번作戰의勝利는 延安占領以上의重大한것이라하며 이로因하야 中共軍은 中國本土와 滿洲사이의中共側連絡을切斷하는同時에 山東省作戰에使用된 中央軍兵力의半數를 北東地方으로 移動할수있게되었다 한다

中間陣團結을 金博士力說

金奎植博士는 지난一日開催되었든 民族自主聯盟發起人會에서 다음과같은開會辭를 하였는데 이는金博士가걸어온 從來의政治路線을 實踐하는데있어서 새로운方向을 意味하는것으로 一般의注目을 끌고있다

나는昨年九月부터 故呂運亨氏와協力하야 左右合作을企圖하여왔었는데 이는 美蘇共委의續開와 南北統一臨時政府樹立을 促進시키기爲함이었다 그러나우리民族은 現在어떤情勢下에處하여있는가 지난五月共委는再開되었으나 同今아무런成果도 얻지못하고 停頓狀態에있으며 左右의分裂은 日益커저가고있으며 그리고 南北은漸々더멀어지고있다 如此한情形아래 中間陣營은 무었을할것인가? 左右翼의合作도困하거니와 이보다도緊急히要請되는것은 于先中間陣營의團結이라고 생각한다 中間陣營의團結조차 얻지못하면서 어찌左右合作을바랄수있으랴 그럼으로左右合作은 第二의課題이고 右中左의各層은 各其陣營의結束을 成就한然後에 이三者가한데 뭉치어 眞正의民族統一을期하고저한다

特別選擧討議 選擧對委第三日

지난九月三十日부터 會議를繼續하고있는 民族陣營의總選擧對策各道郡支部委員長會議는 第三日인 지난一日 出席全員이 麻浦李承晩博士를訪問하고 地方實情을報告한後 下午二時부터會議를繼續하야 總選擧에臨하는民族陣營의主張에關한件과 細則修正에關한件을討議하였다 그리고 第三日인二日에는 主로特別選擧臨에關한件과反動 [illegible]

美國會軍事委員 一行明四日來朝

二日美廿四軍公報官發表에依하면 W・스터링・콜氏等美國々會軍事委員會委員六名으로構成된 視察團一行은 陸軍長官의依囑을받고 太平洋及極東方面의 美國軍事施設과 占領地에對한 諸事情을 視察하기爲하야 明四日飛行機로 來朝하게되였다한다 그라고 이날同機로 레이먼・부레스軍醫少將을비롯한 隨從將校와 經濟專門家크립튼・바론氏等十名도 朝鮮을訪問케된다고하는데 朝鮮問題가 國際聯合總會에上程되어 世界의輿論과同情이두터워가는때인만치 一行의來朝는一般의注目을끌고있다 一行의 멤버一는 다음과같다

▲W・스터링・콜(共和黨) ▲P・에드워드・허-버쓰(民主黨) ▲참-스・A(共和黨) ▲W・E・헤스(共和黨) ▲월터・노부레드(共和黨) ▲레이먼・부레스(軍醫少將) ▲피-든・홀-(陸戰隊連絡官大佐) ▲하워-드・돈少佐(軍醫少將秘書) ▲A・E・콜(海軍中佐) ▲쳅스少佐(陸軍省連絡官) ▲M・E・부라우더大尉(海軍連絡官) ▲쳅스・A・비시아(軍醫代將) ▲베럴・에드링튼(매가더司令部連絡官) ▲크립튼・부라운(經濟專門家) ▲올니암・매커번(同上)

陸次官一日歸國

【워싱톤二日發AP合同】美陸軍次官「윌리암・무레이퍼-」氏는 三週間에互한 日本及朝鮮視察旅行을 終了하고 一日當地에歸還하였다

蘇의對朝鮮要求는 共産傀儡政府樹立

포스트紙社說

【워싱톤二日發AP合同】華盛頓「포스트」紙는 그社說에있어서 明年初期에 朝鮮에서 美蘇兩軍을 同時撤退시키자는 過般의 蘇聯側提案에關聯하야 如左히論하였다

(一) 至急한現下國際問題의事態를正視한다면 우리는 如斯한蘇聯提案에對하야 一種의疑惑을 느끼지않을수 없는것이다

(二) 萬一現下世界事態가現狀과같지않다면 深刻한試煉을겪거온 朝鮮의統一과獨立을回復케하는 建設的措置로서 蘇聯側提案을歡迎할理由도생길것이다 그러나不幸히도 現在의世界事態는 우리의이와같은見解를容許치않는바있을뿐더러 도리혀우리로하야금 過般蘇聯側提案이 다만하나의宣傳活動에 不過하다고 생각케하는것이다

(三) 如斯한蘇聯側提案은 朝鮮獨立問題의難局을打開하는 UN措置를要求한 美國의提案을 UN總會가檢討할準備를하고있는때에提示된것인데 蘇聯은少數派인 朝鮮共産陣營이 將次樹立될 朝鮮臨時政府의支配權을獲得할수있는 朝鮮問題를둘러싼難局은 蘇聯이만든것이라고 하겠으며 다시換言하면 朝鮮의多大數陣營의 臨政에서驅逐되는것을 意味한다

(四) 한편 蘇聯이朝鮮에서要求하는바는 歐羅巴의「鐵의帳幕」後面에서「불가리아」를비롯한 諸衛星國家에樹立한바와같은 傀儡政府樹立일것이며 美蘇兩軍이 朝鮮을撤退한後에는 北朝鮮共産系에依하야 朝鮮을 亞細亞의「불가리아」化하는赤色政變이發生할것인데 萬一 이것이發生치안는다면 이는實로驚奇한일일것이다

(五) 따라서蘇側提案이 UN에提示된 朝鮮問題의眞相을隱蔽하려는 努力이아니라고 우리가믿기를蘇聯이期待하는것은 無理한일이다 蘇聯이眞正한意味의代表的 朝鮮臨政樹立에있어서 우리와協議하려는眞摯한念願을 보이지않은限 朝鮮駐屯美蘇兩軍撤退云々은眞摯한考慮를 받지못할것이며 다만그것이蘇聯의全面的인 宣傳을招來하리라고 생각될뿐이다

民族自主聯盟 結成準委選擧

中間陣營을中心한 合委를中心으로 中間陣營登錄下의 新進黨 靑友黨 民同等의十八個政黨 及五十一個社會團體의集結體인 民族自主聯盟發起人會는 旣報한바와같이 지난一日午後一時 中央廳第一會議室에서 尹琦燮氏司會아래 開會되여 金奎植博士의開會辭에이어 金朋濬氏로부터 同聯盟의趣旨說明과 經過報告가 있은다음 同聯盟結成準備委員選擧에 들어가 金奎植 安在鴻 金炳魯 元世勳 朴健雄 崔東旿 許憲氏等을비롯하야 卅名의結成準備委員을選出하고 同四時半散會하였는데 오는四(土)日午後一時 三淸洞金博士宅에서 第一次結成準備委員會가 있으리라한다

對蘇包圍企圖 유主席美國非難

【벨그라-드二日發AP=合同】「유-고스라비아」政府主席「티토-」元帥는 在鄕軍人會議席上에서「트르맨」主義를攻擊하여 다음과같이演說하였다

(一)「트르맨」主義는 歐洲와世界其他地域에있어서 蘇聯邦各國과東歐의 全民主主義國家를 包圍하려는 軍事基地創設以外엔아모것도없는것이다 나는또다시戰爭이突發할時에對한準備로서 在鄕軍人이恒常待機하고있을것을 要望한다

(二) 우리는勿論向後百年乃至五百年間은 平和를維持할수있도록努力하고있으나 戰爭은 明日勃發한다는豫測下에 우리自身의準備도하여야한다

(三) 내가오날確信하는바는 全世界의 民主々義勢力은 帝國主義者들이 新世界大戰을勃發시키는 그들의慾圖를實行할수없을만치 强力하게되얏다는 事實이다

對歐緊急援助 八億弗을豫想

新六멤버選定 유엔經社理事會

一日UN總會에서는 今年末로任期滿了되는 UN經濟社會理事會의六個「멤버-」國 [illegible]

四大國外相會議 十一月廿五日부터開催

【런던二日發INS合同】英國外務省代辯人一日發表에依하면 對獨講和를審議할四大國外相代理會議는 十一月六日부터 開催하기로되였다하는데 現在美、佛兩國은 이에同意하고있으나 蘇聯側은 아직應答이없다한다 한편四大國外相會議는 十一月廿五日부터開催하리라한다

親蘇路線은아니다 陳氏對外政策釋明

【南京二日發INS合同】一日國民黨組織部長陳立夫氏는 中國外交政策에關하야 如左히말하였다

對日講和問題와「루-마니아」UN參加問題에關한中國見解가 美側見解와달라졌다는事實은 決코中國政策이 蘇聯을支持하는方向에根本的變換을보였다는 것을意味함은 아니다 即中國이對日講和豫備會議에 蘇聯을參席시키고 또蘇聯이支持하는「루-마니아」를 UN에加入시킬것을 支持하고있는것은 從來의中美協調關係에變動을주는 것은아닌것이다 萬若 中美協調가中國에不利하다면 中國은 蘇聯과從來보다緊密한協調를 取할지도몰으겠다는 立法院長 孫科氏의聲明은個人的見解表示에不過하며 이는何等中國政府의立場을闡明한것이아니다

「朝鮮」抹殺論의一面

上代의우리稱號 (二)

薛義植

日帝時代의 統治下에서 이時代的 感覺에 迎合되는風潮이다。그리고 오늘날 解放直後부터 그대로 慣用하기는 느때、어데서나 「朝鮮」을 대표하는 主로 共産系列인 이른바 左翼이다。進步를 追求함은 [illegible] 바름(正)일이다。그러므로 이들이 좋아하는 大韓이라는 國號를 否定하고 「朝鮮」을 採用하겠다고 主張하는것도 亦是 左翼이다 ……

自主의나라요、民主의나라로 再建하려는 國家의 稱號로서 果然 進步的인 表像이 될수있는 用語인가? 筆者는「否」라고 斷定하기에 秋毫의 不安도 느끼지 않는다。……

○

檀君朝鮮이니、箕子朝鮮이니 하는等文句가 있음은 史上의事實이다。檀君時節에 이「朝鮮」이란國號가 있었다고 버젓하게 씨여있는것도 勿論 事實이다。그러나 …… (계속)

人事

▲稙信行 運輸部總務課長辭任 兼龍山工作株式會社常務取締役就任人事次來社

▲邢文基氏(本社々員) 三日上午十時 德壽教會에서 婚姻禮파華燭之典을擧行

▲河祥權氏(朝鮮金融組合聯合會副會長) ▲劉宗濬氏(同理事) 新任人事次來社

▲東亞勳賢勳氏(嚴父) 九月廿三日 光州府 [illegible] 五五番地自宅에서別世